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당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세요.
그 이야기는 남들이 아닌, 오직 당신만이 주인공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아쉬움과 눈물은 내일의 빛나는 장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끝에서 희망과 열정이 묻어나는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



KEPCO

KEPCO

MONTHLY MAGAZINE OF KEPCO

2025 JANUARY

VOL.619

2025. 01 | VOL.619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련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시련에 직면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 헤르만 헤세, <데미안> 中



‘국가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해 나갑시다!

국내외 한전 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역대급 폭염과 117년만의 때 이른 폭설, 그리고 중요한 국가행사가 있을 때마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연인원 8만여 명의 직원들이 24시간 내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에 돌입해, 동계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수도권 HVDC 전 구간 착공과 디지털 혁신의 기초가 될 AMI 2,005만 호 보급 사업도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또한, 국민과 약속한 고강도 자구노력을 노사가 한마음으로 충실히 이행하였고,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재정 건전화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해외에서는, UAE 원전 4호기까지 모두 가동해 K-원전이 더 큰 무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약 4조 원 상당의 사우디 가스복합발전소 프로젝트와 사우디-괌의 태양광 사업을 수주해 미래 수익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때 이끌어 내지 못했고, 에너지 신사업·신기술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습니다. ‘더 끈질기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더 과감하게 신사업에 도전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5년은 글로벌 경기둔화, 지정학적 갈등 확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더 큰 도전과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 전력생태계 개편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에너지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누적 투자 규모가 27경 원에 이르고, 전력수요는 2021년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회사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여러분과 함께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본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력망 건설의 핵심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며, 자체적으로도 건설·운영 프로세스 개선, 新공법·新기자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갑니다.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 ‘변전소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주민수용성도 높여갑니다.

또한, 매출 100조 원을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의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청렴을 바탕으로 더 당당하게 일합니다. 청렴해야 우리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기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더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더 노력합니다. 작년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는 청렴도와 고객만족도를 동시에 높여가는 ‘진정한 100%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기 재무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구노력 이행과 요금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원가 기반의 요금체계 확립과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편에도 온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영업, 송·배전, ICT 등 전 분야에서 경영효율화를 극대화함은 물론, 그동안 간과했던 수익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추가 수익원도 확보해 나갑니다.

셋째, 전력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송·변전, 배전 등의 핵심기술을 신속히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UAE에서의 성공적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원전 수주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낮춰가도록 노력합니다.

해상풍력, 에너지신사업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거나,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는 분야에서, 회사는 민간 참여를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확보한 트랙 레코드를 활용하여 민간과 함께 해외로 동반진출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과 상생의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전만큼은 더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도 동시에 고도화해 나갑니다. 또한, 회사는 에너지 분야 혁신·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보유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유니콘기업을 최대한 많이 육성하고, 전력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는 일에 한전인 모두가 동참해 주십시오.

다섯째, 전력그룹사 협력체계를 강화해 통합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운명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원전 수주와 전력생태계 혁신성장을 전력그룹사와 함께 이끌어 가야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후공시 의무화와 유엔에서 논의중인 국제탄소시장 개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개별기업이 아닌 전력그룹사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母)회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OECD의 ‘공기업 운영 권고안’에 따라, 자율·책임경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한전 임직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업무추진 방향은,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올해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발휘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직원 여러분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현장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듣고 좋은 제안들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목적의식과 도전정신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성과 보상 시스템도 정착시켜 가도록 합니다. 중복업무는 통합하고, 단순 반복되는 일은 자동화해 업무효율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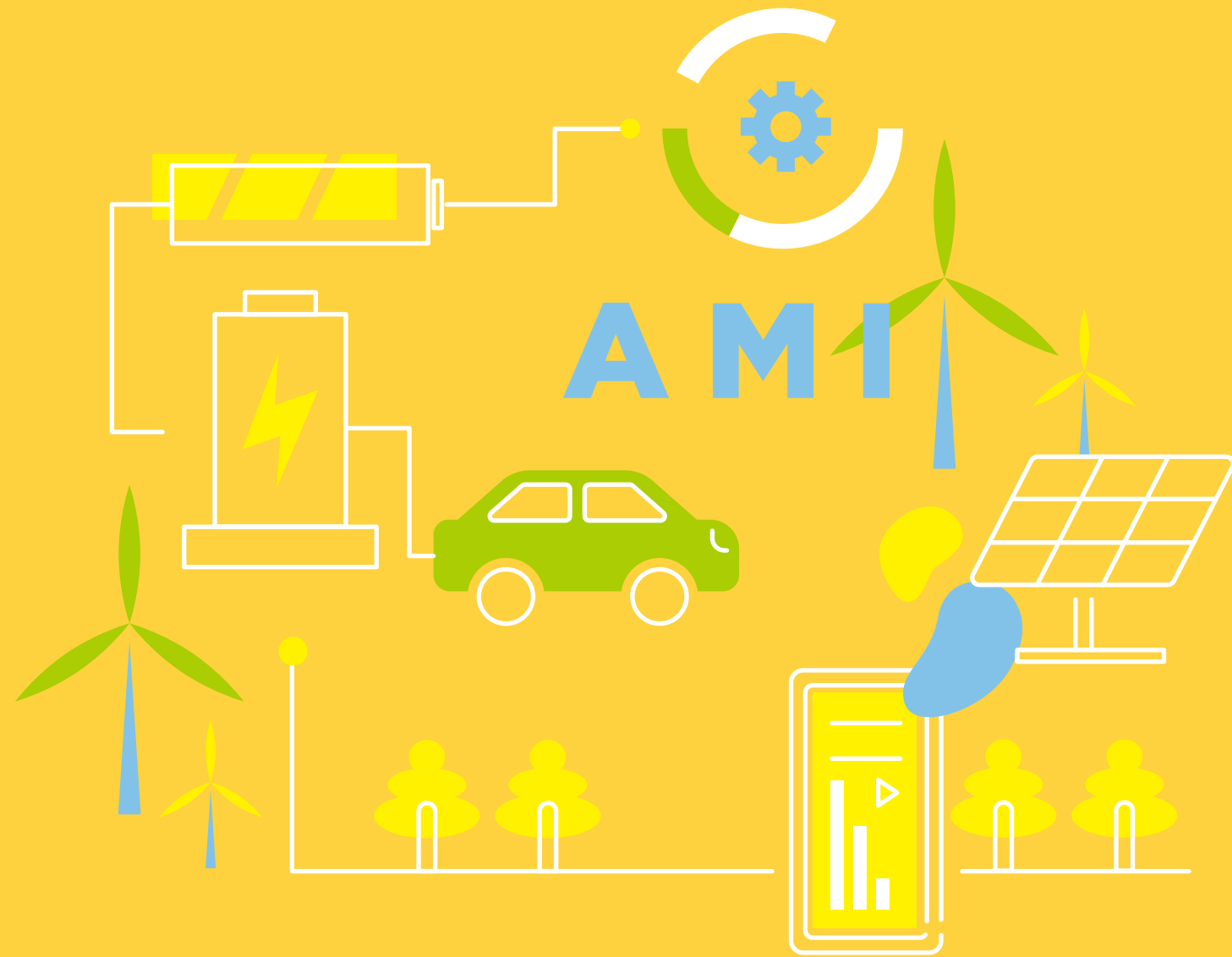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올해는 ‘변화와 혁신을 성과로 보여주는 해’가 되도록 합니다. 곧 발표될 ‘새로운 비전’과 ‘2035 중장기 전략’을 다섯 가지 업무추진 방향과 연계하여,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목표와 실행 과제를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인인 임직원 여러분,
“삼류 기업은 위기로 무너지고, 일류 기업은 위기로 더욱 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류 기업’답게 위기에 대한 생각부터 바꿉시다. 눈앞의 도전과제들을, 한전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단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가 합심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기필코 ‘국가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해 나갑시다.

2025.1.2.(목)

사장

김동철



스마트미터링(AMI)으로 만들어 갈 새로운 에너지 세상!

우리 회사 AMI 보급이 2024년 2,005만 호를 마지막으로 14년간의 대역사를 완료했다. 한전 AMI는 정부의 에너지 신사업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스마트그리드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50만 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 고객 AMI 시대가 열렸다. 이번 호에서는 AMI는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AMI가 앞으로 미래 전력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등 AMI의 A부터 Z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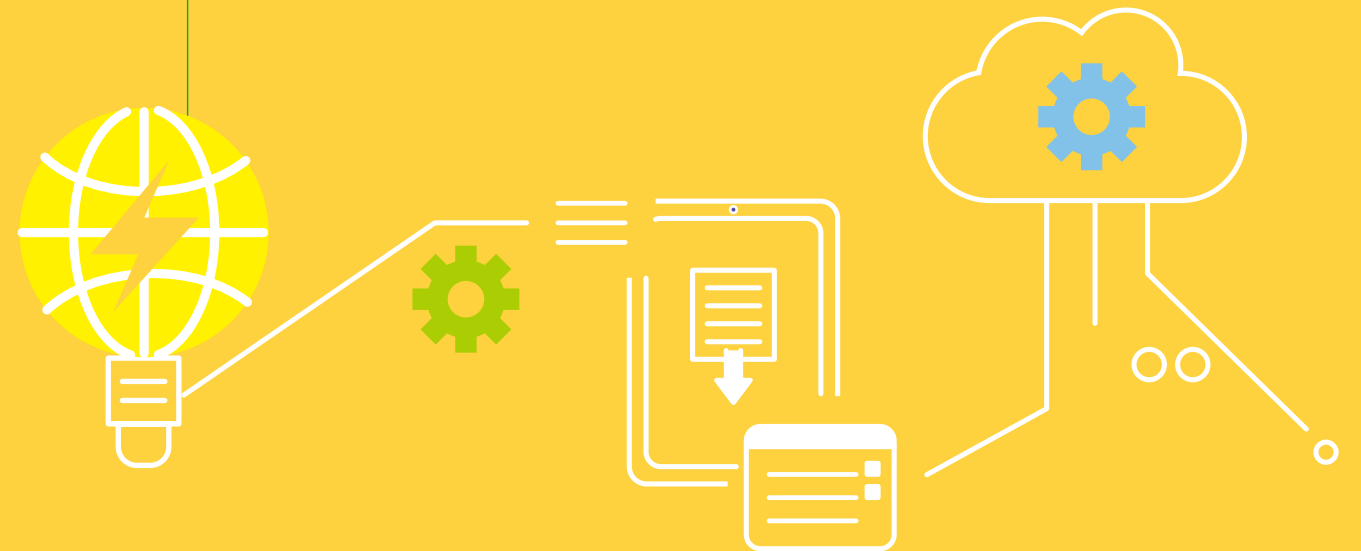
AMI란?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스마트미터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과 요금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자발적인 수요 반응을 유도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를 의미한다. 과거 기계식 전력량계와 달리 최신 스마트미터는 전력량뿐만 아니라 무효, 역률, 피크 정보를 시간대별로 저장하고, 한마디로 수발전 양방향 계량과 원격 On/Off 제어 등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AMI는 스마트미터에 저장된 각종 다양한 계량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편익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다.

Q.

AMI 보급 현황과 해외 동향은?

우리 회사 AMI는 '국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50만 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7차 사업에 걸쳐 추진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 2,005만 호 전 고객에 대해 보급을 완료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MI 보급 및 차세대 스마트미터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력회사 자체 사업 효율화를 위해 AMI 도입을 시작했으나 고객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AM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가별 보급률은 정부 정책과 규제 수준, 시장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보급률이 상이하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 스마트미터 필요성의 증가로 유럽, 아시아, 북미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미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회원국에 대한 스마트미터 보급 의무화, 중국의 지속적인 보급계획으로 2025년까지 전 세계에 스마트미터 12억 5,000만 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Q. AMI의 기술 변화는?

[전력량계] 한전은 통신이 불가한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으로 교체하여 모든 전력량계를 디지털화했다. 표준형(2007~2016년), E-Type(2010~2018년), G-Type(2014년~), AE-Type(2016년~) 등 1세대 스마트미터는 원격검침과 계시별 요금제, 선로정보 계측 위주의 전력량계였다면 차세대 스마트미터 AMIGO(AMI Gear for Open platform)는 선로전압·정전·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격 On/Off 기능을 지원하는 전력 계측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AMIGO는 KCMVP(국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한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보안 모듈을 적용하여 전력 데이터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크기도 기존 전력량계 대비 65% 수준으로 협소 함체에도 문제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무선 SUN 모뎀이 내장되어 별도의 통신 케이블 없이도 전력량계 간 연결 및 모바일을 통한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1분 단위까지 검침 데이터를 즉시 전송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부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원격으로 장애진단 및 복구조치할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전력량계를 교체할 필요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한 가능하다.

[통신] 우리 회사 AMI 통신방식은 기존 KS-PLC 단일방식에서 LTE, HPGP, Wi-Sun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21년부터는 IP-PLC(유선), LTE(무선) 등 통신방식 표준화로 전송속도와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하여 음역 지역을 해소했다. 특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SMGW(Smart Meter Gate Way)는 국제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기존 DCU보다 소형·경량화된 최신 통신 디바이스라 할 수 있다.

Q. AMI 서비스 편익은?

한전은 AMI 기능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원격검침을 시작으로 2019년 실시간 전력 사용정보 제공 앱/웹인 파워플래너의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의 자발적인 수요반응을 통해 요금절감과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제주도 ATT(AMI Test Town) 시범사업을 통해 변압기 부하감시, 정전·전압관리, 위약탐지 등 10개 서비스를 실증하고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2021년 9월부터 제주도에 시행 중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TOU)에도 AMI가 보급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AMI는 현장 업무 디지털화로 전력회사 직원들의 업무편의 제고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검침, 전류제한, 전압관리 등 현장 수행업무가 비대면·원격으로 전환되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고객 응대로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설비의 실시간 감시와 제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배전망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전력 데이터가 통신, 금융, 공공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융합되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전 경영연구원 연구보고에 따르면 AMI를 통해 인력 검침 대체, 에너지 소비 효율화, 설비관리 디지털화, 新전력거래 활성화, e-신산업 활성화 등 연간 3,927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AMI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어 AMI의 사회적 편익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Q. 미래 전력산업 변화와 AMI의 역할은?

탄소중립 선언과 분산법 제정 등 전력사업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저탄소화(Decarbonization), 분산화(Decentr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탈규제(Deregulation) 등의 변화 추세는 전력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수요 반응·피크 감축 등 시간대별 부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등 분산자원 확대로 DS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 전력계통의 변동성 심화에 따라 안정적 망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고 제3자/직접PPA, VPP 등 전력거래 제도의 다양화로 중개거래 플랫폼 등 e신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AMI는 이러한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병으로 도약하고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확대, 전력망 변동성에 실시간 대응 솔루션 제공, e-신사업 융합형 플랫폼 서비스 등 종합 에너지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AMI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따라 배전망 운영 분야에도 AMI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수요자원 시장 등 다양한 신사업 제도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e-콘텐츠 개발과 신사업을 활성화한다.

현재 AMI 기반으로 국민DR, 제3자 PPA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향후엔 VPP, P2P 거래와 같은 신사업 제도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사업 제도하에서 다양한 e-콘텐츠(V2G, 자동DR 등)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새로운 이익 공유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Q. 스마트미터링으로 만들어 갈 새로운 에너지 세상은?

한전은 14년에 걸친 AMI 보급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스마트미터링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의 도래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전, 정부, 산학연 전문가, 해외 전력사 대표, 국내 계기·통신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Beyond Metering, Creating Future Energy Innovation"의 미래 비전과 "Smart Metering으로 Green, 새로운 에너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한전 스마트미터링의 역할과 핵심 전략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래 전력산업에서 한전의 AMI는 e-신시장을 견인(SWITCH)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화(STANDARD)와, 민간 동반 성장의 마중물 역할(SUPPORT)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미터링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최적의 수요관리와 융복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또 新전력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배전 설비운영 효율화와 DSO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민간과는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수출형 스마트미터링 패키지를 개발하여 유망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 표준화와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여 한전 AMI 기술규격이 글로벌 표준규격이 되어 K-AMI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융합과 참여로 창출되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전력 AMI가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으로의 도전,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도약

괌 망길라오 태양광 전경

1995년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복구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회사는 17개국 37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다. 최근에는 괌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6.2GW 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약 6.4조 원의 지분매출과 4.4조 원의 국내 기업 동반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성과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자,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괌과 사우디 현장에서부터 밤낮없이 이어진 협상과 끈질긴 도전까지, 우리 해외사업의 값진 성과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미국 괌 요나 ESS 연계 태양광: 최적의 해법을 찾아서

미국 괌 요나 ESS 연계 태양광 프로젝트는 태양광 132MW와 ESS 326MWh 규모로, 우리 회사가 괌에서 세 번째로 수주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발전소 부지를 입찰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구조로, 시작부터 도전적이었다. 사업개발 T/F팀은 지도와 GPS를 들고 구릉과 숲을 탐색하며 최적의 부지를 찾아냈고, 수도 하강타 남쪽 10km 지점의 요나 지역을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했다. 부지 확보 후에도 ESS(에너지저장장치)와 태양광 모듈의 용량 최적화를 위해 치열한 논의와 시뮬레이션이 이어졌다. 사업개발 T/F팀은 모듈과 ESS 설비용량에 따른 매출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완성하고, 국내 EPC와의 협력으로 비용 절감과 기술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괌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시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겨낸 이 도전은,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팀워크를 빛나게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다위 태양광: 사막에 그린에너지의 미래 그리다

사우디 사다위 태양광 사업은 중동 최대 규모인 2,000MW 프로젝트로, 발주처의 8개월 내 절차 완료(입찰안내서 발급, 입찰서 제출, 낙찰자 선정, 전력판매계약 체결)라는 엄격한 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태양광 사업에서 EPC(설계·구매·시공) 가격은 총 사업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격 협상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입찰서 제출 일주일 전, 공동사업자인 Masdar 본사(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글로벌 EPC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했다. 입찰서 제출 당일까지 EPC사의 상호 경쟁을 유도하여 1% 차이로 최종 낙찰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의 첫걸음이자, 2011년 라빅 중유화력, 2022년 자푸라 열병합 1단계에 이어 우리 회사가 이룬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다. 이를 계기로 2030년까지 확대(~50GW)되는 사우디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루마1, 나이라야1 가스 복합 국경을 넘어선 성공적 협력

사우디 루마1, 나이라야1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는 각각 1,890MW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 두 곳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입찰 준비에 7개월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이 할애되었지만, 사업개발 T/F팀은 시차, 국경, 언어를 초월한 협력으로 사업 수주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냈다.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과 입장이 달라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선행 사업인 라빅 중유 화력사업을 함께 수행한 아크와파워, 사우디 전력공사와의 신뢰가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내 EPC사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 중국 EPC사의 시공 가격경쟁력 등 각 EPC사의 장점을 조합하여 성공적 협업 사례를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2024년 11월, 우리 회사는 25년간 지분매출이 4조 원에 이르는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2.5조 원에 달하는 한국 EPC 및 기자재 동반 진출 효과도 부수적으로 달성하는 등 한국이 사우디 전력산업의 주요 파트너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2 열병합: 신뢰로 완성된 또 하나의 성과

320MW 규모의 자푸라 2 열병합 프로젝트는 2022년 317MW 자푸라 1단계의 성공을 바탕으로 발주처인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단독 사업권을 확보한 사업이다. 2단계 프로젝트는 1단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효율화라는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우리 회사는 1단계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설계를 도출하며 발주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입찰이 아닌 수익계약 방식을 관철시켰다.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법률·기술·EPC 등 사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발주처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발주처는 “1단계의 성공이 2단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뢰를 재확인했고, 이는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자푸라 2 열병합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에너지 안정화와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EPC와 금융 등 팀코리아 해외 동반 진출을 통해 약 1.1조 원의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에너지를 넘어 가능성으로: 글로벌 성과와 지속 가능한 미래

미국 괌 요나 ESS 연계 태양광, 사우디 사다위 태양광, 루마1, 나이라야1 가스복합, 자푸라 2 열병합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수주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성과다. 괌에서는 태양광과 ESS 기술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구축했고, 사우디에서는 대규모 태양광과 가스복합 사업으로 신뢰와 협력을 입증했다. 자푸라 2 프로젝트는 1단계 성공을 기반으로 단독 사업권을 확보하며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성과들은 국경과 시차를 넘어 팀워크와 도전 정신으로 이뤄낸 결과다. 해외사업개발단은 청정에너지 사업 수주로 그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수출 동력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First Mover로 거듭나고자 한다.

루마1, 나이라야1 수주 활동





불확실성의 시대다.
트렌드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내놓은 2025 트렌드 키워드,
SNAKE SENSE*를 중심으로
올해의 트렌드를 리뷰했다.

SNAKE SENSE: 뱀처럼 날카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채자는 올해의 영문 키워드

옴니보어: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이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소비의 전
형성이 무너지고 있다.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시간과 여유가 많
아지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고, SNS를 통해 다른 집단의 삶
과 그들의 선택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객을 분
류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기준인 연령, 직업, 성별, 지역 등을
활용하는 것이 과거만큼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신 니즈,
행동, 취향 등으로 '추론'하여 접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전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소소’하더라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
은 단어였지만, ‘확실한 행복’에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 측면도

존재했다. 이러한 과시적 행복 추구에 대한 반발을 담은 것이
‘아보하’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이 정체되었음에도 여전히 경쟁과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무난하고 무탈한 하루에 감
사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주목받는 것이다. 이는 행복보다 행운
을 강조하는 마케팅으로 이어진다. 행복은 애써서 성취해내야
하는 것인 반면, 행운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다가와 감사한 것
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공진화전략: 비즈니스의 주체들이 열린 생태계를 지향하며 공동으로 성장해 나가는 트렌드

나 혼자 잘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여러 기
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한다. 나와 상대를 구분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야 하며, 비즈니스 생태계와 지역 생태계
의 접목에 힘을 쏟아야 한다.

토픽경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추가적, 부수적인 요소인 ‘토픽’에 더욱 주목

올여름을 강타한 디저트가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요아정의 특징은 베이스가 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본인의 취향대로 마음껏 토픽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비츠로 한껏 멋을 낸 크록스와, 가방에 큼지막
한 인형 키링을 달아 차별점을 두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약간
미완성인 제품을 구매하여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은 소비자 효능
감을 높여준다. 고객이 상품을 재해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페이스테크: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

요즘 음식점에 가면 심심치 않게 서빙로봇을 마주
할 수 있는데, 이런 로봇들은 대부분 화면에서 표정을 보여준
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기능일 텐데 왜 로봇에 굳이 표정을
넣었을까? 직관적으로 보기만 해도 어떻게 사용할지 대략 짐작
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어포던스(affordance)’라 한다. 원초
적 표현 수단인 표정은 가장 직관적인 어포던스라 할 수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기술을 고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다.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는
더욱이 어포던스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해력: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 즉 무해한 사물들이 힘을 갖는 현상

지난 4월, 푸바오의 중국 반환 소식에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내비쳤다. 동물, 아기처럼 귀엽고 순수한 것에 이끌리
는 것은 ‘아기 도식(baby schema)’의 불가항력으로 인간의 본
능이다. 격화된 사회적 갈등과 자극적인 정보로 피로감을 느낀
현대인들은 더욱 무해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곤 한다.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위로받는 것이다.

그라데이션 K: 한국적인 것에 대해 ‘그렇다-아니다’의 이분법이 아닌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때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한국 음악인가? 가사는 모두
영어지만 아파트 게임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아이템을 활용한

음악이다. 유창한 영어 발음 가운데 오직 아파트만 명백한 한국
어로 소리 내는 것 또한 한국인으로서 재밌는 부분이다. 이처럼
‘K’로 대변되는 한국적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며,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
중에 외국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성매력: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요소인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매력도를 높임

주말에 성수동을 방문하면 온갖 브랜드의 팝업스토어가 발길
을 붙잡는다. 독서율은 뚝뚝 떨어지지만 도서관은 흥행을 기록
하고, 밴드의 인기가 떨어졌지만 록 페스티벌은 사람들로 붐
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신개념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사물 본연의 감각을 몸으로 느끼기를 갈망하는 시대
가 된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브랜드를 경험한 고객들은 온라인
에서 그 경험을 공유하며 빠르게 확산시킨다.

기후감수성: 기후위기로 인해 바뀌는 외부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모두들 한 번쯤 “날씨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말을 해 본 적 있을
것이다. 길어진 더위, 시기에 맞지 않는 폭설 등 기후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급변하는
날씨에 불안감과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후위기는 사회
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폭염과 한파, 그
로 인해 급증하는 에너지 요금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
에 없고 이는 기후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하는
일이 기후복지와 연관이 있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
지 고민해야 한다.

원포인트업: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집중하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장이 정체된 사회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이루어질
수 있는 꿈만 꾸는 시대를 초래했다. 놀라운 성장보다는 작은
루틴을 실천하여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나에 만족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은 직원 개개인에 대해 독려가
아닌 격려를 통해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획일적인 목표 설정이
아닌 직원 맞춤형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한 전력사업의 역사

사창립
127주년

우리나라 최초 점등
138주년

한전의 사창립기념일인 1월 26일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날이다. 바로 1898년 1월 26일 고종황제가 전액 출자해 한성전기를 설립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의 역사는 지금부터 127년 전인 1887년 3월경 건청궁 향원정에 밝혀진 첫 번째 전등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는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지 7년 5개월만의 일이며, 가까운 중국의 자금성과 일본의 궁성에서 전깃불을 밝힌 것보다 2년 앞선 선구적인 사업이다.

이후 고종황제는 전기가 근대 상공업 발전에 필수적인 조명과 동력을 제공하는 기초 산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고 산업 증진을 위해 1898년 1월 26일 최초의 근대적인 의미의 전력사업기업인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이 역사적인 시작

을 한전의 출발점으로 보고 1월 26일을 사창립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사창립기념일이 1월 26일은 아니었다. 2012년까지 우리 회사는 7월 1일을 창립일로 기념해 왔다. 이날은 1961년 당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세 개의 전력회사를 하나로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한 날이다. 전력사업 역사 재정립 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 근거(전력사업의 연속성, 소유 지배구조, 근로자 신분의 연속성, 본사 사옥 건축물(ex. 서울본부 사옥) 연속성)에 따라 한국전력의 출발점은 전력사업의 시작점인 한성전기회사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사창립 연도는 1898년, 사창립일은 1월 26일로 재정립하여 기념하고 있다.



1887. 3
우리나라 최초 점등



경복궁, 건청궁 최초 점등

1898. 1. 26
한성전기 설립



1961. 7. 1
3사 통합
(남선전기, 경성전기, 조선전업)으로
한국전력(주) 설립



1982. 1. 1
한국전력공사 발족

2014. 12. 14
본사 나주 이전



2025. 1. 26
사창립 127주년





컨트롤룸에서 설비를 제어하는 담당자들

최첨단 국내 기술 해저 케이블로 제주-육지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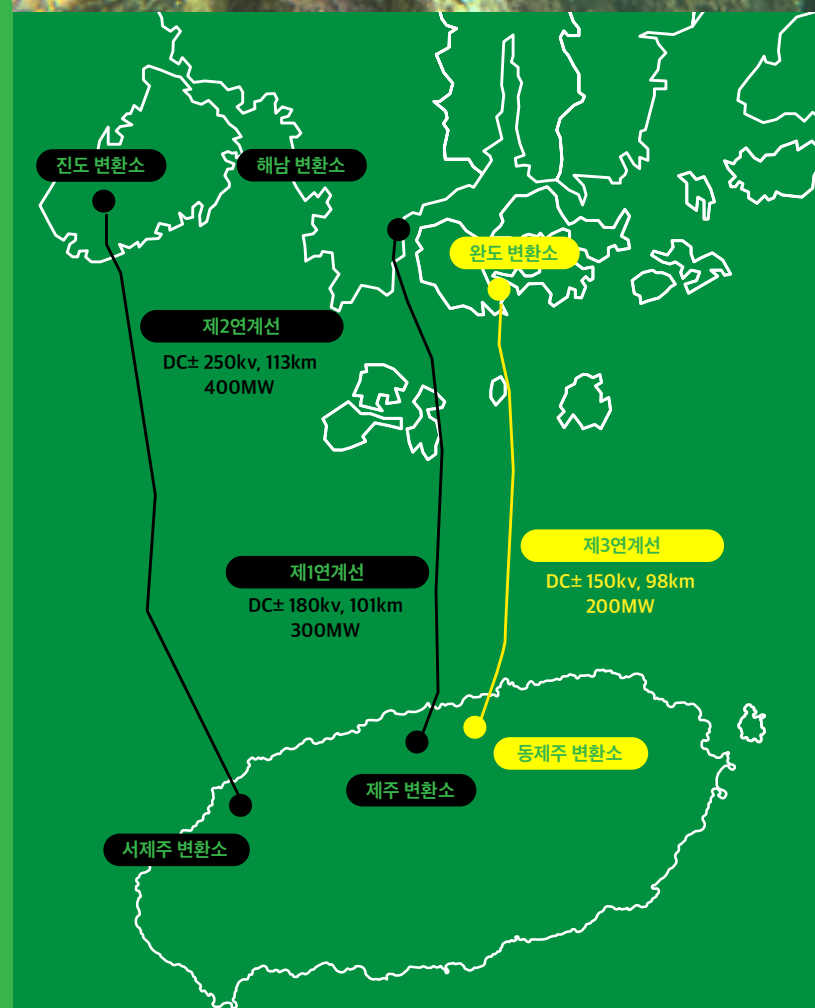
완도-동제주 제3연계 HVDC 준공현장, 동제주변환소를 가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지척이다. 제주의 햇살이 빔어낸 윤슬과 수평선 위에 떠있는 범선 한 척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그림 같다. 동제주변환소에서 바라본, 이리도 평화로운 바다 풍광 밑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바닷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지난해 12월 완도에서 동제주를 잇는 HVDC 건설사업 준공식이 이곳 동제주변환소에서 개최됐다. 이는 완도-제주 간 HVDC 제3연계선로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완도에서 제주까지의 98km를 해저 전력 케이블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해저 케이블 매설작업을 수행하는 잠수부들



바다 위에서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는 선박



완도-동제주 제3연계 HVDC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전압 및 용량	사업구간	선로길이
제주계통 전력수급 안정, 신재생 전원 계통연계	DC ±150kV, 200MW (200MW×1회선)	전남 완도군~제주시 삼양동	98km (해저 91km, 육상 7km)



변압기 설비를 점검하는 동제주변환소 담당자들

순수 국내 기술인 전압형 HVDC 기술 적용한 제3연계 HVDC 선로

완도-동제주HVDC건설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송 인프라의 중대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서, 제주와 완도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신재생 에너지원의 연계를 목표로 98km에 달하는 육상과 해저 케이블을 통해 양방향 전력전송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압형 HVDC 기술을 적용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 분리된 소규모 전력계통이다. 최근 관광산업 성장과 지역개발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섬 내 자체적인 발전설비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1998년 최초로 해남-제주를 연결한 제1연계선, 2013년 진도-서제주 간 제2연계선을 건설해 제주지역의 부족한 전력을 육지에서 공급받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다.

그 이후 11년이 지난 2024년 말 직류송전 분야의 DC 케이블 제작과 시공부분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기존 전류형 HVDC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전압형 HVDC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육상과 해저 케이블을 통해 양방향 전력전송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압형 직류 송전설비의 핵심인 변환용 밸브

이 사업으로 제주지역의 전력공급 능력은 기존 360MW에서 600MW로 증가했으며 예비율도 14.3%에서 30.8%로 개선됐다. 그 덕에 제주지역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재생 발전량에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져 제주 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게 됐다.

전압형 HVDC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전력 방향 전환기능이다. 즉, 휴전 없이 육지에서 제주로만이 아니라 제주에서 육지로 전력을 역전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완도지역의 전력공급 안정성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완도-동제주 HVDC건설사업 준공으로 한전은 육지-제주 간 안정적 전력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한전은 HVDC전력공급 용량 확대를 제주도 내 비싼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구입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200억 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이 기대되며, 전력계통 취약지역인 완도의 전력공급 선로를 환상망으로 구축하게 되어 전력공급 신뢰도를 높이게 됐다.

정부는 2016년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올해 9월 변환설비 시험을 완료한 후 2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설비 안정성을 검증, 11월 29일 준공했다. 사실 제주 제3연계 HVDC건설사업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에 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지역의 민원이 극심하여 변환소 부지 선정에 3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사업이 지체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21년 8월에서야 완도변환소 전원개발사업이 승인 완료되었고, 2022년 2월 동제주변환소 공사에 착공했으며, 그해 10월에 해저케이블 설치에 돌입해 2024년 9월 완도 동제주 변환소 변환설비 가압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민원과 어려움 극복하며 상업운전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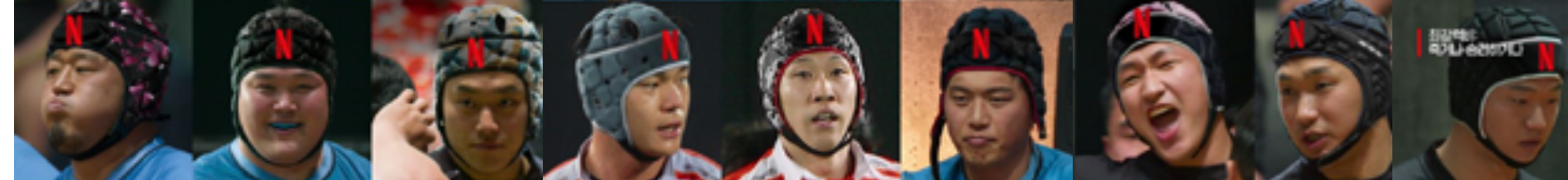
긴 시간의 대장정이었고, 이는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뿌려졌다. 중부건설본부 서남해계통건설실 서남해변환부 김효원 차장과 정재원 대리는 그간의 일들을 풀어놓는다. 토건공사 착공부터 변환설비 준공까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본사와 건설·운영사업소 합동으로 시공 및 시험분야 협업을 통한 공정관리를 추진하여 설치공정을 제작사 표준공기 대비 5개월 단축하였다. 특히 2023~2024년도 동계기간 완도와 제주지역 날씨가 8주 연속으로 비와 눈이 내리는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도 현장의 모든 시공사들이 설치공정 단축을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시공을 진행했다.



1. 콘트롤룸에 설치된 모니터로 변환소의 전 설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2. 완도-제주 HVDC 제3연계 선로 건설과 운영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편 변환설비 해외 제작사인 히타치에너지사(스웨덴)에서 파견된 설치 매니저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수개월간 시공현장에 상주하며 설치공정 현장 독려 및 지속적인 현장 공청회의를 시행하여 시공기간 단축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작사도 제주지역의 올해 하계 전력수급상황의 어려움을 인지한 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운전과 시운전을 완료했고, 그 덕분에 2024년 11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시공사의 복합공정 추진 과정에서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운영사업소의 적극적인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여 안전사고 없이 시공을 완료할 수 있었다.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동제주변환소 운영 담당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어찌하든 주어진 과제를 해내고야 마는 이들이야말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내는 한전인들이 아닐까.



국내 최초 럭비 예능을 달구는 한국전력 럭비단

요즘 럭비가 핫하다. <최강야구>, <강철부대>, <도시어부> 등으로 주목을 받은 장시원 PD가 연출을 맡아 <최강럭비>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넷플릭스에서 선보이고 있는 것. 강하고 거친 힘으로 모든 것을 걸고 승부하는 럭비라는 스포츠의 매력을 예능이라는 형식으로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전이 있다. 그야말로 최강 럭비단인 한국전력 럭비단이 <최강럭비>에 출연해 힘을 아낌없이 과시하고 있다.

쓰러져도, 부러져도 앞으로만! 극강의 정면승부

<최강럭비>는 스포츠팬뿐만 아니라 서바이벌 예능을 사랑하는 시청자들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포츠 서바이벌 예능이다.

<최강럭비>는 <최강야구>에 이은 두 번째 '최강' 시리즈다. 럭비는 전진해야만 이기는 스포츠고 두려워도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스포츠다.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걸 던지는 럭비라는 세계가 <최강럭비>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넷플릭스 <최강럭비>는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 100kg에 육박하는 거구들이 80분 동안 질주하며 내쉬는 거친 호흡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그래서인지 <최강 럭비>를 감상하는 내내 럭비의 세계로 빠져든다.

한전을 비롯해 포스코, ok, 현대글로비스, 연세대, 고려대, 국군체육부대, 상무 등 7개의 럭비단이 출연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럭비의 꽃이라 불리는 스क्रम부터 럭비의 득점방식인 트라이, 극한의 킥 대결을 통해

대진을 결정하고, 박진감 넘치는 각축전을 벌인다. 그중 가장 활약을 펼치는 팀이 한국전력 럭비단이다. 스क्रम을 짜 상대 팀과 힘겨루기를 하는 스क्रम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줬으며, 트라이 대결에서도 가장 빛났다.

One for all, All for one의 팀워크 정신

럭비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스포츠지만 국내에서는 비 인기 종목으로 어릴 때부터 유망주 발굴이 어렵고, 선수층이 두텁지 않으며 상황이 열악하다. 하지만 한번 럭비의 세계를 알고 나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매력을 지녔다고 한다. 럭비는 특이하게 공을 앞으로 패스할 수 없기에 무조건 앞으로 돌진해야 하는 경기다. 태클이 들어오고, 피 흘리며 쓰러져도 어찌하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인생만큼 처절하고 절박하다. 하나된 팀워크를 이루는 One for all, All for one, 경기 후에는 네 편 내 편 없이 화합하는 노사이드 등 럭비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다.





럭비계의 정점, 한국전력 럭비단

<최강럭비>에서도 입증됐듯이 한국전력 럭비단은 국내 럭비계의 최상위에 자리해 있다. 일단 국내 팀 중이 최다 우승팀이며,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 출신이다. 한국전력 럭비단에 들어가는 것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한다. 그러기에 한국전력 럭비단 소속이라는 것은 곧 럭비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임을 나타낸다. 국내리그에서 유일하게 용병 없이 강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럭비는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운동이 아니므로 인성도 갖춰야 한다. 김동환 감독은 한국전력 럭비단 선수들이 실력은 기본이고 인성까지 겸비한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자랑한다.

한국전력 럭비단의 희망사항

사실 예능 출연으로 선수들이 얻는 수익은 0원이다. 이는 한전의 겸업 금지 조항 때문이다. 예능 출연으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다. 어찌하든 럭비의 매력이 대중에게 어필되어 많은 분들이 럭비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넷플릭스 예능 <최강럭비>로 한국전력 럭비단이 널리 알려져 대중에게 더욱 사랑받게 되길 한전인으로서 응원해야 할 때다.

<최강럭비> 출연자들의 순둥발랄한 TMI

넷플릭스의 주인공들을 실제로 만났다. 그라운드에서의 거친 면모는 온데간데없고 순둥순둥하고 매너 있는 반전 매력에 놀란다.



***나관영 선수(포워드)** 스크럼의 일선에서 기동 역할을 하는 프롭으로서 맹활약을 펼쳤던 나관영 선수는 대진을 위한 첫 스크럼 대결에서 흙바닥에서 버티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갓 결혼한 새신랑으로 촬영 때의 카리스마와 달리 순박한 미소가 한가득이다.



***김집 선수(주장, 포워드)** 포워드 중에서도 프롭답게 카리스마를 내뿜는 인상이다.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고 외로운 '솔로'임을 꼭 밝혀달라고 한다.



***장용홍 선수(백스)** 체력이 좋고, 달리기도 빠른 팀의 전천후 보배. <피자컬100>에도 출연해 우승을 노려볼 만큼 주목을 받았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중도하차 해 아쉬움이 크다고 한다.



***신다현 선수(포워드)** 예능을 하면서 팀원들이 워낙 인성이 좋아 욕을 안 쓰니 방송에서 욕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였다. 럭비를 하였던 아버지(신성곤)의 강권으로 럭비의 길에 들어섰는데, 지금은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한다.



한국전력 럭비단

- ◆ 창단: 1986년, 국내 실업팀 중 가장 역사 깊은 팀
- ◆ 특징
 - 국가대표 엔트리의 약 67%를 점유('21도쿄올림픽, '23항저우아시안게임)
 - 전체 선수 국가대표 출신
- ◆ 성과
 - 우리나라 실업팀 중 최다 우승팀
 - 국내 7인제 대회 9연승(2011년부터 무패 中)



한국전력 빅스톰 배구단

- ◆ 창단: 1945년 창단한 국내 최초 실업팀. 남선전기 배구부에서 출발
- ◆ 성과
 - 2008년 프로팀 전향 후 KOVO컵 3회 우승('15/'16, '16/'17, '19/'20)
 - 포스트시즌 4회 진출('14/'15, '16/'17, '21/'22, '22/'23)
 - '24/'25시즌 홈개막 최초 5연승 달성



한국전력 육상단

- ◆ 창단: 1962년 4월 1일
- ◆ 특징
 - 국내 탑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한 장거리·마라톤 특성화팀
 - 국가대표 마라토너 보유(심종섭) : '14인천아시안게임, '16리우 올림픽, '21도쿄올림픽, '23항저우아시안게임
 - 우수한 지도자 보유:
 - 김재용 감독('92 국내 최초 2시간 10분 벽 돌파, '93 보스턴 마라톤 2위)
 - 박주영 코치(전국체전 마라톤 우승('08, '10, '13))



직류(DC), 글로벌 에너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

전기의 시대는 1831년, 패러데이가 발전기와 변압기의 기본 원리인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류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하며, 전력 시스템은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한 설비를 갖춘 대규모 시스템으로 확장됐다. 이 시스템은 변동하는 수요에 맞춰 공급과 실시간 균형을 유지하며 중단 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과 대규모 직류 전기 부하의 증가는 전기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하며, 직류 활용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직류(DC),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나

직류 전원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고밀도 전력, 높은 전력 품질, 재생에너지 연계, 그리고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등 대규모로 직류를 사용하는 새로운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교류 시스템을 통한 전력 공급이 아닌 직류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고효율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압 케이블을 활용한 해저나 지중 직류 송전의 확대가 요구되며, 차별화된 주파수와 전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졌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고밀도로 집적된 전자 장비는 직류 전원을 사용할 경우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처럼 정밀한 전압 조절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직류 전원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고가의 의료 장비인 MRI, CT 등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높은 전력 품질을 요구하며, 정밀 계측 장비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여 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교류 시스템에 연계할 경우 주파수와 전압의 안정적인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고품질 전력을 요구하는 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저장장치와 전력 변환 과정을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며, 직류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력 변환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도 직류 전력으로 충전되므로, 직류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면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원격 지역의 소규모 전력 시스템이나 중요한 지역의 전력 시스템을 직류 마이크로그리드로 구축하면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교류 전원에 비해 전력 품질이 안정적이며, 고주파 왜곡이 적고 재생에너지와의 연계가 용이해진다.



한전의 DC 사업 위해 정부가 나서야

이러한 직류 기술은 글로벌 전력 시스템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Con Edison은 직류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도시 지역의 전력 품질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부하에 직류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은 직류 송전 기술을 활용하여 장거리 송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와 부하 센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미국 동남부 지역의 Duke Energy는 태양광 발전과 전력망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류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 회사로서 직류 기술을 활용해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는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직류 기술의 장점인 전력 손실 저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직류 기반 시스템에 연계하여 발전량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직류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전이 직류 사업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기술개발, 투자, 정책적 지원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와 초기 투자 비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전력 회사, 정부, 학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직류 시스템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한 적응과 해결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설날,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설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설날은 일가친척 모두 한 집에 모여 덕담을 주고받으며 그간 행가지 못했던 안부를 묻는 날이다. '설날' 하면은 떡국, 세배, 한복, 차례 등이 떠오르는데, 왜 이들이 설날과 관련 있는지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설날의 풍습이나 전통을 새해를 맞아해 확실히 알아보자.

#2025



#새해

#설날

#설날속설



♥ #세뱃돈

#신정

#구정



#민족_대이동

#떡국



글 편집실

Q.

설날을 왜 음력으로 계산하죠?
신정과 구정은 또 뭐고요?

새해 첫날인 1월 1일. 그러나 양력 달력에서 그날은 '신정'이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은 아니다. 농경 생활이 중심이었던 과거, 계절과 농사의 리듬을 더 잘 반영하는 음력을 따르면서 음력 1월 1일을 '진짜' 새해로 보았다. 특히 설날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컸기에 조상들은 자연스럽게 음력설을 보내게 됐다. 태양력을 따르는 서양 달력이 1896년 도입되면서 양력이란 개념이 생겨났고, 1949년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기념하면서 '신정'이 생겨났다. 이후 1980년대, 잠시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계속 음력설을 따르면서 양력 1월 1일은 '신정', 음력 1월 1일은 '구정'이라는 인식이 대중화됐다.

Q.

옛날에도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있었을까요?

귀성문화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과 길이 붐볐다고 전해지는데, 다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지금처럼 꽉 막힌 교통 체증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본가를 방문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근처에 사는 친척 집을 방문했다. 혹은 도보로 이동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면 각자의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민족 대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197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서울 등 도시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뤄지면서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움직임이 커졌고, 1980년대 언론에서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용어가 널리 퍼지게 됐다.

Q.

세배와 세뱃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지갑은 두둑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지갑은 훌쩍해지는 시간. 세배하는 시간이다. 세배는 아랫사람이 웃어른에게 하는 새해 인사로, 새해를 맞아 심신을 바로 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세배를 하면 웃어른이 저마다의 덕담을 건넨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삶의 지혜를 얻으라는 숨겨진 의미도 있다. 세뱃돈도 설날에 세배하러 온 젊은이들을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어 용돈으로 조금씩 쥐어준 것에서 시작됐다. 본래는 세뱃돈 대신 과일이나 떡 등을 쥐어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금의 형태로 변했다.

Q.

지역마다 설날 풍습이 다른가요?
다들 떡국을 먹는지 궁금해요!

당연하게도 지방마다 설날을 기념하는 방법이 다르다. 제주에서는 차례상에 감귤이 필수고, 남도 지방에서는 나물의 가짓수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북부 지역인 함경도나 평안도는 콩으로 만든 장만두, 콩떡이 차례상이나 설 음식으로 오른다. 또한, 설날에 떡국을 '꼭' 먹어야 한다는 의식은 서울과 경기권의 풍습이라는 사실! 제주는 떡국 대신 밀전병에 무채를 넣은 빙떡을 먹고, 강원도는 감자떡과 올챙이 국수를, 경상도는 평국을 먹는다. 새해를 보내는 방식도 다른데, 세배 예절을 강조하는 서울과 경기권과 다르게 충청도는 가족끼리 소풍 등 야외 활동을 즐긴다. 경상도는 집안 장독대를 돌며 절을 올리는 풍습이 있다. 심지어 강원도는 얼음을 채워 만든 '얼음 옷놀이'로 옷놀이를 즐기는 만큼 지역마다 설날 풍습이 확연히 다르다.

Q.

설날 덕담을
주고 받는 이유는 뭐죠?

연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을 주고받는다. 이는 말에도 영이 깃들어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연령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령관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뿜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말이지만 그 말 자체에 신비스럽고 강한 힘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말 하도록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며 덕담을 주고받는 좋은 풍습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여기서 잠깐!

설날이면 빠질 수 없는 고민거리인 세뱃돈. 부모에게 드릴 용돈에 조카들에게 줘야 할 세뱃돈까지 골이 아플 지경이라면 주목하자. 1인당 평균적으로 세뱃돈을 얼마큼 준비하고 MZ세대들은 평균 얼마가 세뱃돈으로 적당하다고 여기는지 지난해 설날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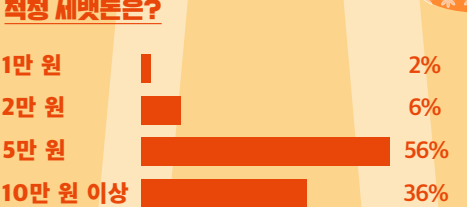


세뱃돈 얼마가 적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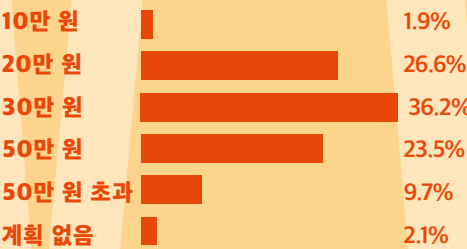
초·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세뱃돈은?



중·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세뱃돈은?



부모님 용돈은 얼마쯤 생각하고 있나?



출처: KB국민은행, 한화생명(2024년)

새해니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해 개정된 법안이나 제도가 많은데, 그중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있다. 최저임금 1만 원대 돌파에서부터 택배 주 7일 배송까지, 알고 나면 더할 나위 없이 이로운 새해 맞이 개정 정보를 파헤쳐본다.

#2025

#새해

#새해_맞이



#달라지는_것들

#최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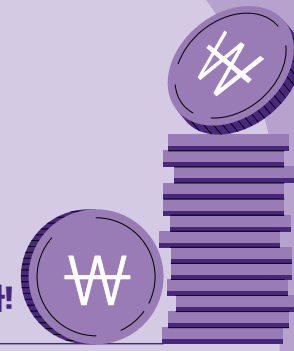
#육아

#CBDC

#금투세_폐지

글: 편집실

2025년 최저임금, 최초로 1만 원대 돌파!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급은 2,096,270원이며, 2025년 최저연봉은 세 전 25,155,240원이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수습 급여도 최소 1,886,643원으로 책정됐다.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하루 64,192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결혼하면 세금 혜택을? 결혼세액공제

2025년 신설된 세법 중 하나가 결혼세액공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생애 1회로 한정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한다. 결혼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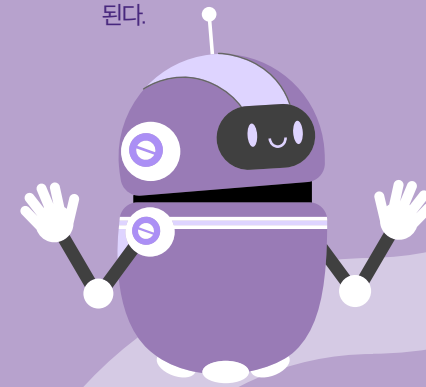
일과 육아를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 이로 인해 최대 1년 동안 약 500만 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며,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AI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교과서가 초·중·고 주요 과목에 도입됐다. AI 교과서는 개인별 학습 수준과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신 정보로 지속 업데이트된다. 같은 해,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되어 학생들이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할 수 있게 됐다. 두 제도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는 세상? CBDC 상용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도 카드도 필요 없는 디지털 머니가 주류로 떠오를 예정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해 신뢰도와 안전성을 겸비한 디지털 화폐로, 매초 그 가치가 달라지는 가상화폐와 달리 CBDC는 가치가 정해져 있어 달러나 원화 등을 일정 금액 비율로 교환할 수 있다.

이제 매일 택배를 받아볼 수 있다? 대한통운 주 7일 배송

대한통운에서 2025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O-NE)'를 시작했다. 주문 시점과 관계없이 익일 배송이 보장되며, 요일 특수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 가능? 주식 차트를 5시간 30분 더 본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호가 방식과 수수료 인화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TF와 ETN 등 거래를 위한 법규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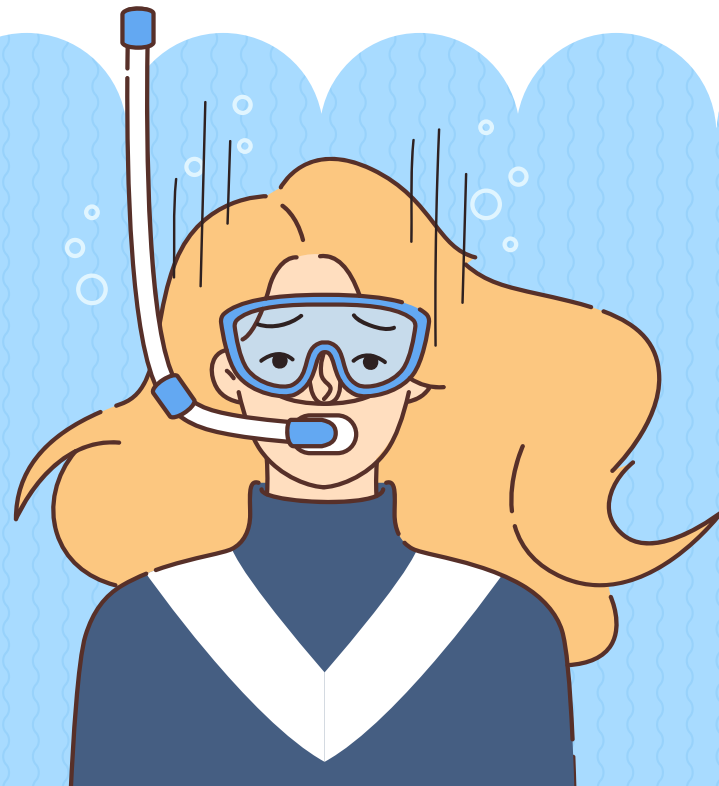


주식 개미들 소리 질러! 금융투자소득세 완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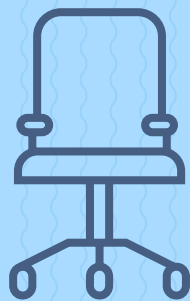
소위 '금투세'라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요 몇 년간 이에 대해 말들이 많이 오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금투세에 대한 불만감이 컸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완전 폐지됐다.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더 미뤄졌다.

"마주할 결심" 내 인생의 주인공 되기

사라졌다. 프로포절(졸업논문 연구계획 발표)을 3시간 앞두고 학생이 잠수를 탄 것이다. 전화는 받지 않고 카톡 메시지도 읽지 않는다. 여기저기 연락을 시도했지만, 발표 1시간 전까지도 연락은 닿지 않았다. 결국 다른 교수님들께 양해를 얻어 프로포절을 포기했다. 며칠 후,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학생이 어물쩍 사과했다. “죄송해요.” 어떤 교수님께 들은 실화다. 그러나 이런 일은 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흔히 ‘회피형 인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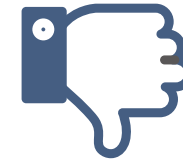


어떤 사람을 회피형 인간이라 부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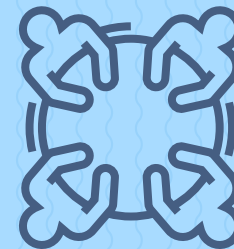


삶은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며,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어떤 사람은 직진하며 돌파를 시도하고, 또 다른 사람은 협력하거나 우회 전략을 택한다. 정답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피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우리는 회피형 인간이라고 부른다. 사실 회피형 인간이 현대 사회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인류는 아니다. 오래전부터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았으며, 증상이 심할 경우 회피성 성격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관계를 맺기 힘들어한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걱정해 중요한 일을 맡기를 꺼리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 자체를 무시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외로움이나 우울감, 불안감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나이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등 자존감 문제도 발생한다.

회피형 인간이라도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
위하여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대부분의 회피형 인간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조직에도 어려움을 만든다. 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꺼려 팀워크를 약화시킨다. 특히 불편한 대화나 갈등 상황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단순하게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 뿐 아니라 동료에게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혹시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일단 업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능한 책임질 일을 맡으려 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에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리더의 위치가 되면 더 끔찍해진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피하려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업무 마감일을 지연시키는 등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타부서나 환경 탓으로 돌리려 한다. 따라서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조직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회피형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언 발에 오줌 누기 혹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같은 전략인 셈이다. 그렇다면 회피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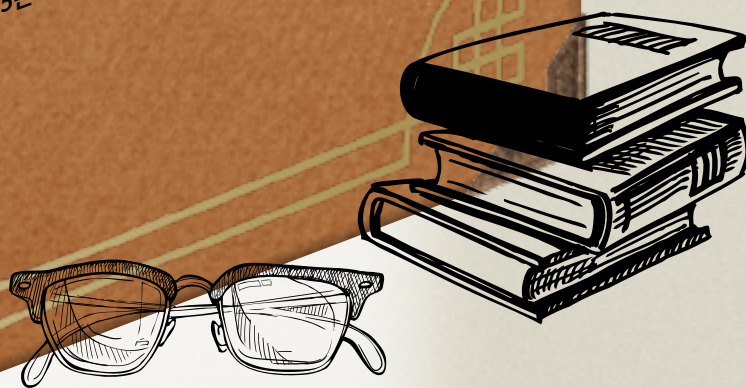
우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들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작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좋다. 예시로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무게를 올리거나 몸무게의 숫자를 낮추는 방법이 많이 언급된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회피 성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두려워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회피형 인간은 이 감정들을 자신만이 느끼는 매우 특별한 감정이며, 그 강도 또한 타인들에 비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타고난 기질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주로 과거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스스로 일기나 명상 등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여 전반적인 불안감과 예민함을 줄이는 것도 회피 성향 극복에 도움이 된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특히 직장에서는 시시각각 스트레스 상황이 유발되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개발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화장실과 같은 분리된 공간에서 귀여운 동물이나 아기가 나오는 동영상을 잠시 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이 내 인생에 출연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단지 조연에 불과하다. 주인공은 항상 나 자신이다. 어찌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임을, 내가 속한 조직의 주인임을 자각한다면 조연들의 오지랖쯤은 하찮게 느껴질 것이다. 주인공은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앞에 놓여있는 작은 불편함에서 고개를 돌리지 말자.

새해여서 더 좋을, 추천 도서 Pick크닉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삶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의 'Talk' 시간. 경영연구원 사우들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 한전인의 마음을 움직일 인생 도서
4권을 소개한다.



PANEL

전력정책연구원 김준형 수석연구원
올해 2월 14일이면 입사한 지 만 20
년이라는 김준형 수석연구원은 끊임
없는 지식 축적을 위해 경제, 사
회, 과학 등의 분야에 대한 도서나
연구 수행에 필요한 보고서를 읽으
면서 여가를 보내는 편이다. 이번
'TALK'를 통해 자유로운 주제에다
소프트한 방식으로 한전 사우들과
인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한다.

전력정책연구원 소홍석 책임연구원
수영, 사이클, 달리기 등 육체 활동을
좋아하는 소홍석 책임연구원. 그런
그에게 반전 매력이 있으니, 바로 독
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더
욱 열심히 독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 밝힌 소홍석 책임연구원은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사우
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고 소감을 남겼다.

연구기획팀 백민호 선임연구원
백민호 선임연구원은 계획 없이 즉
흥적으로 새로운 곳을 탐방하는 여
행을 좋아하는 타입이다. 다큐멘터
리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장리를 가
리지 않고 보지만 주로 경제나 자연
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한
다고. 무난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자신과 달리 '충청도 개그맨'이라고
불리며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책임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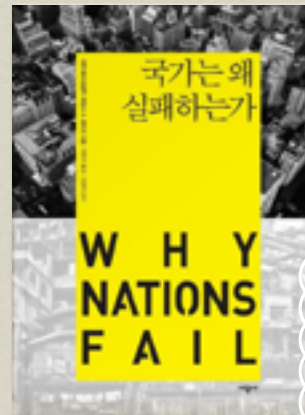
연구기획팀 이채홍 대리
평소 취미생활도 혼자서 할 수 있
는 것들이 대부분인 ISFJ인 이채홍
선임연구원. 대표적으로 수영,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독서다. 간혹 책
추천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는데,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인 한편
반응이 별로일까 신경 쓰이기도 한
다고. 그래도 올 새해에는 책을 추
천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용기를 불
어넣어 주고 싶었다.

김 준 형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이 책은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고 있는 '실패한' 나라들을
논한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학자이자 MIT의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변명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설명을 내놓는다.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저



“ 젊었을 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사회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흔 살이 넘어가자 작게는 회사, 넓게는
지구촌 사회에 속해 있음을 체감했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는 수십억 자산가로 풍요롭게 사는 반면 누구는 기아와 전쟁
등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사회 시스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이 책에서의 행복의 의미는 주로 경제적인 척도로 보고 있지만- 살기 위해 정치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요즘, 소통과 통합과 같은 포용적 정치와 인간관계가 해답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국가의 성패를 가리는 요인을 지리와 문화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 인간이 만든 제도인 '정치(政治)'라는 내부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우리 회사는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이후 재무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덩달아
조직문화도 많이 위축되었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흔히 MZ라고 불리는 젊은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성세대 직원들과
업무 방식, 조직문화 등의 차이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개개인이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식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합의를 통해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한전 사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 홍 석

"체중계 눈금보다 '건강한 몸'이 먼저다. 몸이 회복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뱃살과 체중을 줄이고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각종
대사이상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내 몸'을 바꿔야
한다. 체중조절용 식품에 의존하거나 적게 먹는 다이어트, 죽어라 운동만
해서 숫자만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 '대사이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몸이 회복되면 뱃살과 질병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는
지난 7년간 '찾아가는 비만클리닉'을 통해 수많은 직장인들의 건강을
되찾아준 박용우 박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이다.

- <내 몸 혁명>, 박용우 저

“ 평소 건강이 안 좋고 비만 상태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던 차에 이 책을 읽고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건강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그 덕분에 신체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서 감량 이후 아직까지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못 입던 멋진 옷도 마음껏 입을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높아진 듯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기대될 정도로 매시간 매분 매초가 즐겁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삼아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필독서라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체중계의 눈금보다 건강한 몸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체중계의 눈금만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크게 인상에 남아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체중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몸이 건강해지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한전인 모두가 올 한 해는 건강해져서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올해 5kg 추가 감량에 성공해서 철인3종경기에 나가 볼 생각입니다. ”

백민호 **결작을 탄생시킨 도시들의 이야기**

예술과 역사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찬사를 받은 <예술, 역사를 만든다>의 저자 전원경이 예술과 공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이 책은 매주 토요일 진행된 예술의전당 인문 아카데미의 강연 내용을 정리하고 300여 점의 도판을 담아 완성되었다. 수많은 수강생들을 매주 불러 모은 강의인 만큼 눈에 쏙쏙 들어오는 흥미진진한 예술과 공간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유럽을 거쳐 러시아를 지나 미국 뉴욕에서 끝을 맺는다. 예술을 시간순이 아닌 공간별로 풀어낸 책은 많을 수도 있지만, 서양 예술 전체를 한 지도 위에 펼쳐낸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술, 음악, 문학을 넘나드는 저자의 폭넓은 시각이 빛을 발한다.

- <예술, 도시를 만나다>, 전원경 저



“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강연하시는 전원경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박식함과 전달력에 반해 본사 1층 한전도서관에서 <예술, 도시를 만나다>를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도시의 역사와 그 도시에서 피어난 미술과 음악 등을 그 도시에 살았던 혹은 그 도시를 사랑했던 예술가의 배경과 함께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하 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술, 도시, 역사는 어쩌면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지만, 친절하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계속 읽게 되는 흡입력이 있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도시를 이해하고 예술적 영감을 확장하는 안내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술과 도시는 각각 감상의 대상과 단순히 거주공간이 아니라 예술가의 창조적 역량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존재이며, 예술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창의적 공간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예술을 통해서도 도시의 여가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통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작가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예술이 가진 감수성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섬세함을 조금은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우 여러분께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 시간과 노력은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지혜를 얻으셨기를 기원합니다. ”



이채홍 **삶의 위대함을 넘어서는 고귀한 여정!**

일리노이 주의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란 청년 래리.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친한 동료가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을 목격한 뒤로, 그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안정된 직장도 약혼녀,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모두 포기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답을 찾아 먼 여행을 떠나는데....

한편, 래리의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사랑 대신 화려한 생활을 선택한 래리의 약혼녀 이사벨, 대공황 때 빈털터리가 된 재벌 2세 친구 그레이, 운명의 배신을 견디지 못한 꼬마 아가씨 소피 등은 세상과 부딪치며 자신의 삶을 펼쳐 나간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 <면도날>, 서머싯 몸 저

“ <면도날>은 <달과 6펜스>로 유명한 작가 서머싯 몸의 3대 장편소설 중 하나입니다. 몸은 <달과 6펜스>에서 달(이상)을 쫓고자 달의 세계로 뛰어들었던 화가 찰스를 그렸었는데요. <면도날>은 달(이상)의 세계와 6펜스(현실)의 세계 양쪽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상을 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화가 찰스의 이야기는 감동을 주지만, 현실을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벽을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도날>이라는 작품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꾸며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는 점에서 사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자만에 찬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인생에 답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전의 저는 <면도날> 속 래리처럼 '궁극적인 만족은 오직 정신적인 삶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말에 수긍하는 쪽이었습니다. 송고한 삶이란 철저한 자기절제와 박애정신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등장인물들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고 삶을 살아내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반찬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처럼 사람들 각자 원하는 인생의 그림이 있고, 다양한 삶의 자세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사우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후회 없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괜찮다면 한 권 더?

김준형 책임연구원의 Pick!
 <불변의 법칙>, 모건 하우절 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삶의 교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읽 어볼 만한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소흥석 책임연구원의 Pick!
 <고수의 보고법>, 박종필 저
 ‘보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생각하기’라는 철학을 짜임새 있는 글로 엮어 독자에게 전달해 사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백민호 선임연구원의 Pick!
 <예술, 인간을 말하다>, 전원경 저
 사랑, 이별, 젊음, 노동 등에 대한 고 민을 화두로 던지고 예술가들은 작품 을 통해 어떠한 답을 내놓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홍 대리의 Pick!
 <넥서스>, 유발 하라리 저
 정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저자의 스토리텔링이 흡입력 있게 다가옵니다.



겨울을 휘돌아서,

강원도 태백

겨울의 도시 태백

산에 둘러싸인 ‘바람’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에 머물던 날. 겨울의 도시 태백으로 떠났다. 과거 탄광 도시로서 위세를 떨었던 태백은 탄광이 하나둘 닫히면서 조용한 도시로 변했고, 한동안 그 자리를 대신할 그 무엇도 없어 보였다. 마치 긴 겨울잠에 빠진 듯해 보였던 태백이 둥글게 말았던 몸을 일으키며 꿈틀거리고 있다. 살아 숨 쉬는 자연 도시로서 말이다.

눈이 내리지 않은, 하얀 숲

태백에 왔으니 태백산국립공원을 안 갈 수 없다. 시내에서 30여 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태백산은 마치 겨울의 여왕이 감싸 안은 듯 푸른빛을 띠면서 동시에 고고해 보였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자작나무 숲을 보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스토리가 있는데, 무연탄 광산인 함태탄광이 폐광하면서 생긴 부지에 폐탄광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자작나무 숲을 조성한 것. 인공의 자작나무 숲은 자연의 자작나무 숲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사실 자작나무 숲이라고 하면 인제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겨울 무렵이면 인파로 북적이는 데다 가는 길까지 험준하다는 진입장벽이 있다. 반면 태백산국립공원의 지리지골 자작나무 숲은 인제의 자작나무 숲보다 면적이 작지만 사람의 발길이 아직 뜸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입구에서 30여 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가는 길에는 얼어붙은 계곡물이 영하의 날씨를 체감하게 해줬다. 잎을 떨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군락으로 모여 있다 보니 그 모습이 기이하게 아름다웠다. 마치 ‘지금 이 풍경이 진짜 겨울’이라고 소곤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주한 새하얀 자작나무 숲. 빼곡하게 자리 잡은 자작나무가 숲길을 길게 터주었다.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마치 눈이 내린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온통 하얗다. 느릿하게 숲길을 걷다 보니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다. 탄광이라는 과거의 부흥이 자작나무 숲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새하얀 겨울의 풍경을 만들어 냈다.



태백의 맑은 정기로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태백지사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1.19~1.27)에서 무정전 전력 공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태백지사. 이는 태백지사의 굳건한 자부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끈끈한 동료애를 형성해줬다. 폭설 등 겨울철 전력 공급의 취약 원인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선제적 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덕에 태백 시민들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2025년을 맞이해 하성원 차장은 “늘 그래왔듯 새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태백시의 전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작은 연못이 낙동강을 이루기까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 낙동강. 그 낙동강의 발원지가 태백에 있다. 바로 황지연못이다. 황지연못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산책하기 좋아 보였다. 또한, 큰 연못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연못들을 물길이 잇고 있었다. 세 개의 연못은 연못의 둘레가 100m인 상지, 50m인 중지, 30m의 하지로 불린다. 수질은 굉장히 맑아서 바닥 돌이 다 보이는 수준이었다.

황지연못이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데에는 옛 문헌이 한몫했다. <동국여지승람>, <취죽지>, <대동지지> 등에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황지연못에서 용출된 물은 황지천을 이루고, 구문소를 거쳐 낙동강과 합류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을숙도를 휘돌아 남해와 한뫼이 된다. 작은 연못에서 샘솟은 물이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물들의 안락한 쉼터가 되기도 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한반도 남쪽의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황지연못을 보고 있다 보니 이 연못을 이루는 물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다. 찾아보자 태백시를 둘러싼 태백산, 함백산, 백병산, 매봉상 등의 줄기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었던 물이 모여 황지연못이 되었다고 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연못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의 발원지인 줄 누가 알았을까. 이처럼 사소한 언행이 훗날 거대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산에 둘러싸인 ‘바람’

태백이 가진 매력을 논하려면 풍력발전이 불려오는 시각적 경이와 이를 둘러싼 풍경을 빼놓을 수 없다. 풍력발전은 단순한 에너지 생성의 역할을 넘어서, 태백만의 독특한 경관으로 자리 잡았다. 해발 1,000m 정도의 우뚝 솟은 산 봉우리마다 거대한 풍력발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고랭지농업의 대표주자인 너른 배추밭과의 조합이 환상적이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바람의 언덕’이다. 깊숙한 산세에 보물처럼 숨겨진 명소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계절이 겨울인지라 푸르름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 대신 첩첩산중으로 쌓인 산세와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 대의 풍력발전이 묘한 고무감을 들게 했다. 두 번째로는 현지인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귀네미마을’이다.

귀네미마을에서 느낀 것은 단지 바람의 힘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도심과 분리된, 시간을 잊게 만드는 평화로움이 있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이질적일 법했지만, 오히려 자연의 일부처럼 녹아들어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산 중턱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쌓아 온 삶의 흔적과 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풍력발전의 모습이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태백의 겨울은 대자연의 무대다. 눈으로 덮이면 태백산맥의 능선들은 더욱 뚜렷해지고, 자작나무와 풍력발전, 그리고 황지연못까지 이어지는 풍경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를 보는 순간, 자연이 지닌 고유의 리듬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간의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지지리굴 자작나무 숲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산세가 아름다운 태백산

남서울본부 김영후 대리, 뉴욕 마라톤 참가하다!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 미국 동부 뉴욕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바로 지상 최대 규모의 마라톤인 뉴욕 마라톤을 직접 보고 즐기 위해서다. 국적과 인종 그리고 나이를 떠나 거리로 나온 응원 인파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라톤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함께 마라톤을 즐긴다. 2024년 11월, 올 한 해 한전인답게 열심히 일한 만큼 나에게 대한 도전으로 뉴욕 마라톤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왔다.



뉴욕 마라톤 그 속으로!

2만 명 이상이 완주해야만 비로소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세계 7대 마라톤 대회는 보스턴, 시카고,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그리고 호주에서 매년 열린다. 그중 응원 열기가 가장 뜨겁기로 유명한 뉴욕 마라톤은 2014년 전 세계 147개 국가에서 7만 명이 참가했고, 약 5만 5천여 명이 완주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마라톤 대회로 다시금 인정받았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탑승한 대회 전용 버스의 차창에 어느새 NYPD 특유의 눈부신 경광등 불빛이 비쳤다. 그제야 나는 출발 지점인 스테튼 아일랜드에 다다른 것을 알았다. 장장 14시간의 비행 뒤에 숙소에서 하룻밤만 자고 나온 터라 몸이 피곤했음에도 설레는 마음에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대기 구역에는 추위와 싸우는 참가자들과, 애써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베이글이랑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로 정적인 공간이 채워지고 있었다. 나 역시도 그들과 같이 추위와 싸우며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 마침내 우리는 출발선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기 시작해 이윽고 길고 높은 대교를 건너자 브루클린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팻말과 함께 수줍게 팔을



북쪽의 다리로부터는 퀸스버러 브리지를 달리려는 마라톤러들

내밀며 하이파이브를 해달라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 그때부터 '내가 정말 뉴욕 마라톤을 뛰고 있구나'를 실감했던 것 같다.



꿈결 같았던 그날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문구의 팻말을 만들어 응원하는 사람들과 참가자들을 위해 손수 간식을 준비해 나눠주는 사람들과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때로는 주로가 좁아질 정도로 밀고 나온 수많은 응원 인파는 퀸스와 브롱크스를 거쳐 센트럴 파크까지 즐기치게 이어졌고 그 속에서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마치 내가 진짜 마라톤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로를 가득 채우며 목청껏 응원하는 사람들, 햇살에 비친 가로수, 그 위로 펼쳐진 오래된 빌딩들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런 풍경 속 한 가운데를 달리고 있으니, 마치 '꿈 속을 달리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언제 뉴욕을, 그것도 맨하튼 도로 한복판에서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이처럼 뜨겁게 뛸 수 있을까.



끝이 아닌 시작

그렇게 인생 첫 마라톤을 위한 지난 6개월간의 훈련은 센트럴 파크에 모인 수많은 관중 앞에서 멋지게 유종의 미

를 거두었다. 비록 나의 목표였던 싱글(3시간 10분 미만)에는 미치지 못한 기록이었지만, 탈진으로 메디컬 센터에 들어갈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없이 뿌듯하고 개운했다. 특히 이런 엄청난 축제에 내가 주인공의 하나로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좋았다. 혹시 나처럼 달리기를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도시에서의 런트립(RUN+TRIP)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해외 7대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다면?

1 접수 기간에 맞춰 추천 응모하기

대회가 마무리되고 나면 보통 바로 다음 연도의 접수를 안내한다. 당첨 확률은 5~10%며, 당첨되더라도 참가비는 보통 30~50만 원 정도다. 당첨되는 순간 참가비가 바로 결제될뿐더러 환불은 불가하니 응모할 때 여러 조건들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2 국제 공인 여행사(ITO)에서 여행 상품 구매하기 우리나라에는 공식 인증 여행사(ITO)가 세 곳이 있다. 낙첨하자마자 여행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봐 두는 것도 요령 중 하나다.

3 기록 자격 획득하기

7개 대회 모두 빠른 기록을 제출하면 참가권을 보장해 준다. 대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30대 남성을 기준으로 2시간 55분 정도를 주파해야 한다. 심지어 커트라인마저도 단축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보스턴 대회는 추천제가 없어서 여행사 상품 또는 기록제로만 참가가 가능하다.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뉴욕 도시 한복판을 달리고 있다.



#INSTAGRAM

이 코너는 KEP-CN과 KEPCO-EPA입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구명됩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울산본부



빠르게 오르는 물가로 인해 김장김치 마련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 본부는 부산진구 기초수급자 10,000명의 건강하고 넉넉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제15회 1만 세대 사랑의 김장 나눔' 발대식에도 참여했으며, 후원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김장통과 자원봉사자들의 환호가 광장을 꽉 채웠다.

#부산울산본부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1만_세대_사랑의_김장_나눔 #김장김치 #겨울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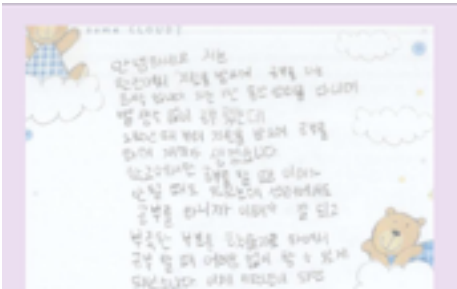
광주전남본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으로, 사고 당일 현장에서 임시전력 공급과 함께 사고 현장의 수습 활동을 지원했다. 사고 다음날부터는 유가족과 사고수습 관계자 등에게 충전 서비스와 세면도구, 방한용품, 음료 및 간식 등도 제공했다.

#광주전남본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_사고
#임시전력 #봉사활동

함안전력지사



우리 지사 봉사단 초창기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칠원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감사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가 모두에게 감동을 전해주었다.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함안전력지사 #칠원지역아동센터 #크리스마스
#편지 #감동 #고마운_마음 #전하기_좋은_계절

제주본부



제주의 푸르고 아름다운 사려니숲길!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자 우리 본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사려니숲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수와 물티슈를 전달하며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려한 제주의 숲, 모두의 마음을 모아 보호해야 할 때다.

#제주본부 #사려니숲길 #산불예방 #캠페인
#푸른_숲 #아름다운_자연 #오래_볼_수_있도록

강릉전력지사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좋은 연말! 우리 지사는 직원들이 매달 기부한 러브펀드 기금으로 지사 인근 복지시설에 가전제품을 기부했다. 우리의 선물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릉전력지사 #사랑나눔 #러브펀드
#가전제품_기부 #따뜻한_겨울 #훈훈 #뿌듯

남서울본부



특별한 날을 상징하는 케이크! 우리 본부는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크리스마스 롤케이크를 선물했다. 바쁘고 고된 일상에 치여 낭만을 챙기기 어려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설레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

#남서울본부 #크리스마스 #케이크
#달콤하고_부드러운 #설렘 #기대 #따뜻한_연말

경남본부



우리 본부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최고 수준(Level5)을 획득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용기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친환경 활동 덕분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남본부 #2024년_지역사회공헌_인정제_심사
#보건복지부_장관상 #지역사회와_함께 #기업의_책임

충북본부



우리 본부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점자로 표기된 위생용품 키트를 청주맹학교에 전달하였다. 휴대용 점자 인쇄기를 활용해 점자 표기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고 포장하였다. 시각장애 아동들이 건강하고 자립심 있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북본부 #굿네이버스 #점자_표기 #위생용품_키트
#생활에_불편함이_없도록 #건강하고 #편리한

원고·사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oco.kr
문의 061-345-3128

KEPCO NEWS

2025. 01



2024년 해외사업 역대 최대 투자회수액 3천억 원 이상 달성 전망

한전은 해외사업 수익성 제고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2024년 한전 해외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연 매출액 3조 원 이상, 투자회수액 3천억 원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전년(2023년 2.5조 원) 대비 약 120%, 투자회수액(2023년 1,325억 원)은 약 230%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주요 투자회수 내용으로 2,900억 원 이상의 배당금, 본사 기술지원을 통한 100억 원 이상의 발전사업 기술지원 수수료 등이 있다.

한전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 위기 속에서도 30년간 해외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올해 거둔 유달리 높은 성과는 그간 한전이 추진해 온 배당 관련 주주 간 협상, 유상감자를 통한 전략적 재무관리 등 사업별 맞춤형 경영관리 노력이 이루어 낸 결과다.

AI활용 전기사용 패턴 분석, 실시간 요금과다 예측 및 사전 안내 서비스 개발

한전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기요금 패턴을 분석하고, 요금급등 위험을 사전에 예측·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혹한기(겨울철) 난방사용과 혹서기(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으로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에 대한 고객 불만을 줄이고, 요금절감과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로 한전은 디지털전환실, 전력연구원 및 강원본부 등 사내조직을 중심으로 애자일(Agile)팀을 구성하여 9월부터 100% 한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 특히, 최신 지능형검침인프라(AMI)와 AI 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고객 맞춤형 UI/UX 설계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했다.

한전은 12월부터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주택용을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림톡 형식의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며, 해당 가구는 10일 간 전기사용량으로 한 달 사용량을 예측하여 당월 전기요금에 과다하게 청구될 것으로 예상 시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안내받는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완도-동제주 HVDC 준공,

전력계통 안정화와 연 200억 원 전력구입비 절감

한전은 지난해 12월 6일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완도-동제주 HVDC 건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 육지-제주 간 전압형 HVDC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제주지역 전력망의 안정화를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 분리된 소규모 전력 계통으로, 관광산업 성장과 지역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기존의 자체 발전 설비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998년 해남-제주 HVDC, 2014년 진도-서제주 HVDC 이후 3번째 HVDC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한전은 2016년 12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해저케이블 설치, 올해 9월 변환설비 설치와 시험 완료 후 2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설비 안정성을 검증하였고 11월 29일 준공했다. 완도-동제주 HVDC 건설사업 준공으로 육지-제주 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동서울변전소,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 건설

한전은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설비증설 사옥을 전력사업 관련 기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민 친화형 복합사옥으로 건설하여 미래 에너지 기술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전은 변전소 건물 상부를 증축, 한전 동서울전력지사, 한전 KPS, 한전KDN, 카페스(KAPES) 등 전력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관련 6개 기업을 유치하고, HVDC 엔지니어링센터와 제어 시스템 연구소, 교육센터, 전시관 등 시설을 구축하여 동서울변전소를 HVDC 기술 허브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변전소 외관 디자인을 선정하여 주변지역 미관을 개선하고 주요 전력설비를 건물 안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서울변전소에서 운영되는 전력이 2.5GW에서 4.5GW로 약 1.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력설비를 옥내화하면 전자파가 60%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전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전자파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관련 협의체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하남시의 교산 신도시와 3호선 감일역 등 숙원사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설비로서, 한전은 정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 서대문은평지사 복합사옥 신축공사 건설현장 방문

한전 김동철 사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대문은평지사 복합사옥 신축공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과 겨울철 안전 확보 상태를 집중점검 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대문은평지사 복합사옥은 지하에 154kV 수색·중산변전소 2개와 지상에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게 될 서대문은평지사 판매사업소를 건설한다. 한전은 이미 서울, 대전, 부산에서 주거 시설과 변전소를 함께 건설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한전 직원이 직접 변전소에서 근무

하고 거주하면서 전력설비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증명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에기평과 ‘에너지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업무협약 체결

한전은 12월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과 ‘에너지 신기술 규제프리 실증존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 실증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과 에기평은 규제특례제도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프리 실증존’ 기획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프리 실증존’은 기존의 규제특례제도인 규제 샌드박스과 규제특구의 실증범위가 과제별로 특정 지역에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신기술 간 복합적인 대규모 실증이 가능한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2차 에너지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다.

복합적인 대규모 실증으로 신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인 및 트랙레코드 확보가 가능해지며 신기술 상용화 또한 앞당겨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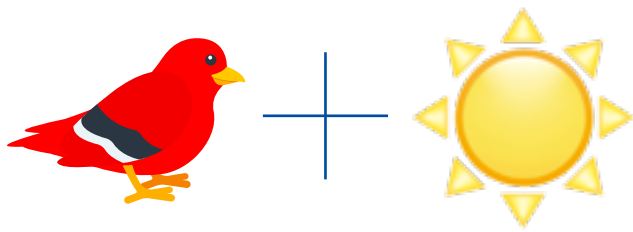
2024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인증 획득

한전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2024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으로 선정되어 12월 10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인증식에서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제’는 기업 내 윤리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윤리준법경영 실천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한전은 언어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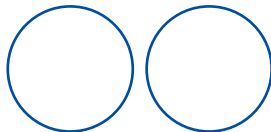
01 — **이모지 난센스
quiz**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int. 2025년 00가 밝았습니다.



정답



02 —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이*현(2266)	정*민(3005)	최*용(7577)	황*철(5851)	정*은(0105)
이*현(6629)	김*현(0524)	박*제(7505)	윤*화(6795)	강*아(2920)
김*호(9405)	장*라(2266)	이*진(3066)	조*명(8766)	장*백(1930)
최*정(2008)	김*영(0978)	박*진(9169)	최*현(9881)	민*기(6087)
문*표(5498)	황*재(3371)	최*연(5270)	강*혜(1226)	박*범(2861)
남*라(0208)	나*중(7528)	김*현(6922)	김*엽(3988)	김*화(1856)

03 — 지난호 정답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